

##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 공항만·수출입물류 종사자부터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총 17개 기관, 70명 위촉
- 마약밀수 사각지대 포착 및 예방활동 강화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관세청은 5월 7일(목)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마약밀수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에는 주요 마약밀반입 경로인 공항만·특송·국제우편 등 수출입 물류 분야 종사자를 비롯해 마약류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외국인 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마약밀수 관련 위험정보와 사각지대를 감시·제보하고, 마약밀수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 대한항공, DHL, FEDEX, CJ대한통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한국청소년복지협회 등

다음으로 대국민 공모 그룹에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모집한 일반 국민 50명이 참여한다. 특히 미래 사회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은 이번 국민감시단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단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동향, 의심 징후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유튜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 국민감시단」은 단순 신고자를 넘어 사회 안전 파트너로서, 마약밀수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조사국 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문기 (042-481-7910)
		담당자	서기관	조흥래 (042-481-7911)

